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u>이용허락규약(Legal Code)</u>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행복지수의 영향요인 연구

- 서울시를 대상으로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박세진

행복지수의 영향요인 연구

- 서울시를 대상으로 -

지도교수 고 길 곤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3월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박 세 진

박세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6월

위 원 장 <u>박 정 훈</u> 부위원장 <u>박 순 애</u> 위 원 <u>고 길 곤</u>

국문초록

본 연구는 행복지수의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시간적 범위는 2019년이다. 인간은 욕구의 충족을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Alderfer의 욕구이론(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 및 개별 하위 영역들에 대한 만족이 축적되어 상위 개념인 행복이 결정된다는 행복의 상향 확산이론의 관점에서 세부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특성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연령대별로 영향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독립변수는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며 종속변수는 행복지수이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행복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특성 중 기부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가구특성 중 가구원수는 행복지수에 부(-)의 영향, 배우자는 정(+)의 영향, 주거특성 중 아파트, 자가, 근린생활만족도(녹지, 운동적합성, 공공시설 편의성)는 정(+)의 영향, 거주기간은 부(-)의 영향, 경제적 특성 중 소득은 정(+)의 영향, 부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특성 중 학력, 직장, 이웃관계, 계층 상향 가능성은 정(+)의 영향을 나타냈고, 기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lderfer의 3가지 욕구가 모두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상위욕구인 성장욕구 및 관계욕구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국가의 역할과 연관지어 행복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행정학적 의미가 있으며, 서울시민 2만 가구의 대규모 표본을 모집단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일반화 확보 측면에서 이전 연구와 차별화된다.

주요어: 행복지수,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

학 번: 2020-26682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7
	제 1 절 이론적 논의	7
	1. 행복의 개념과 의미	7
	2. 행복의 확산에 관한 이론	9
	3. 욕구이론	12
	제 2 절 선행연구	14
	1.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논의	14
	2.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	18
	제 3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22
	제 1 절 연구모형과 가설	22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26
	제 3 절 분석자료 및 방법	32
제	4 장 분석결과	34
·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34
	제 2 절 변수간의 상관분석	39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42
	제 4 절 가설의 기각 및 채택	63

세	5 상 결혼	co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65
	제 2 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66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68
참.	고문헌	70
	∇ 무 ∋].	
	표 목 차	
[班	2-1] Maslow와 Alderfer 개념 비교 ······	13
[丑	3-1] 독립변수와 욕구이론과의 관계	24
[丑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1
[班	3-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표본설계 개요	32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4
[丑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35
[丑	4-3] 응답자의 유형별 행복지수	37
[丑	4-4] 상관분석 결과	40
[丑	4-5] 다중공선성 검증	42
[丑	4-6] 전체 가구 다중회귀분석 결과	44
[班	4-7] 제3종 제곱합 분석결과	48
[班	4-8] 청년층 다중회귀분석 결과	49
[4-9] 중장년층 다중회귀분석 결과	52
[丑	4-10] 노년층 다중회귀분석 결과	55
	4-11] 전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교ㆍ	58
	4-12] 행복지수 영향요인 요약	63

[표 4	-13]	가설의	기각 및	채택	•••••	• • • • • • • • • • • • • • • • • • • •	•••••	••••••	63
			Ξ	1 림	목	를 차			
[그림	2-1]	행복의	확산이	론	•••••	• • • • • • • • • •	•••••	•••••	10
[그림	3-1]	연구모	형(개념	적 준	거틀)	•••••	•••••		2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한국은 10위로 비교적 높다. 한국은 짧은 기간동안 눈부신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개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기존의 경제지표에서 개인의 만족, 삶의 질, 행복이라는 보다 주관적인 지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행복(Happiness)은 시대에 관계없이 인간이 추구해야할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다. 철학적 관점에서의 행복에 대한 관심은 18세기 Jeremy Bentham(1789)에서부터 시작되어 행복을 사회정치적 목표로서 삼는 것은 이미 제안되었고(Prycker Valérie, 2010),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행복의 추구'라는 구호가 포함되어 있었다(McMahon, 2005; 이성윤, 2014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대다수 국가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의 목표를 국민의 행복추구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두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은 정책적 활용이라는 현실적 측면을 감안하여 행복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국도 1980년을 전후로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정책의 주요 사항이 되어왔다. 한편 2000년도부터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이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명소ㆍ김혜원ㆍ차경호ㆍ한영석ㆍ임지영, 2003).

최근의 우리나라 정부의 국정목표를 살펴보면 국민행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목표를 "국가중심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하며 국정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전환하였고, 국민 행복을 국정의 최고가치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인 주체로 간주하고, 개개인의 국민주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국민행복을 국정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주인인국민이 추구하는 행복을 국가적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행복이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이자 착도라는 전제 아래(Layard, 2005) 많은 학자들이 행복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지금까지 사회적, 정치경제적 요인 등 환경적 요인 및인구통계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논의대상에 포함되었다.

확산이론의 접근방식은 다양한 연구에서 행복연구의 이론적 틀로 사용되고 있다. 행복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상향 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과 하향 확산이론(top-down spillover theory)으로 나눌수 있다. 상향이론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하위영역의 만족이축적되어 상위개념인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을 이룬다고 주장한다(Sirgy et al, 2010). 반면 하향이론은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이 삶의 각영역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김병섭·이수영·안선민, 2015). 본 논문은 행복에 관한 상향 확산이론에 입각해서 개인의 기본적 욕구에 대한 충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행복을 상향식 접근법으로 보는 것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데, 행정이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 중 하나다(정정길, 2011:122). 이런 맥락에서 행복 결정요인

관련 연구는 국가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어떤 행정서비스를 세부 정책단위에서 제공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세부영역별 정책적 함의 제시를 위해 개별적인 영역에서의 만족이 종합하여 개인의 전반적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행복의 상향 확산이론의 기본 가정에 입각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향이론에 기반하여 개인들의 객관적 특성 요인인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인간의 욕구 관련 가장 널리 알려진 Maslow의 욕구계층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 욕구, 자기실현 욕구로 나뉘는 공통의 욕구가 있다. Alderfer의 ERG 이론은 Maslow 욕구계층론을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세분화하여 발전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Alderfer의 이론과 관련된 세부 항목을 독립 변수로 선정하고 종속변수인 행복지수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다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대해 서울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국가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국민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과 명분이 있다. 더욱이 행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개인의 행복

증진에 국가가 기여해야 한다(이윤희, 2010). 그런 점에서 행복의 영향요인에 대한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실제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유용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실제로 행복과관련이 있다면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국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할 수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일반 시민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이고, 시간적범위는 2019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한 '2020 서울서베이'를 사용함에 따라 2019년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서베이 자료는 서울시의 정책지표 개발과정책수립에 기초자료가 된다. 서울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자료이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시점을 기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영향요인 연구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표를 포괄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망라한 전국단위의 설문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학적 특징을 갖춘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서울서베이 설문자료는 연구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실제로 서울서베이 설문조사결과는 서울의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여 서울시 정책추진과 시정운영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과 실증분석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논의에서 행복의 개념 및 행복의 확산 이론, 욕구이론을 살 펴보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그 런 다음, 논의를 기반으로 변수를 도출하고 가설을 수립한다. 이때 가설 검정을 위한 독립변수는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 과 관련된 요인들, 종속변수는 행복지수로 하며,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선정한다. 모형을 설정하고 나서 기술 통계와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는데, 이때 가구특 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 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살펴본다. 이후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요 인의 정도에 대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과 비교·분석해보고자 하였 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향 후 적절한 서비스 정책 및 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행복의 개념과 의미

행복은 철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시대와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행복은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Layard, 2005)로 넓게 정의되기도, 전반적인 삶의 질과 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Veenhoven, 1999)라고 세부적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행복에 대한 관점은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관점으로 나뉘어 상충되는 방식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심리학적 견해로 Diener(1984)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행복을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행복은 주관적인 것 보다 객관적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회학적 시각도 있다(Veenhoven, 2001; 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재인용).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는 Campbell(1976)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크게 외부환경과 관련된 객관적인요소를 강조하는 사회학에서의 삶의 질 개념과 주관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심리학에서의 삶의 질 개념으로 나누어진다(오민지, 2016).

한편 행복을 개인의 주관적 경험 및 인지 상태로 보는 철학적인 견해와(Kraut, 1979), 쾌락주의처럼 개인의 행복과 만족만으로 인간의 안녕 (well-being)이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적 전통에 따라 덕(virtue)을 중시하는 행복주의 또는 덕성주의 (eudaimonism) 접근 역시 존재한다. 이 관점에서는 개인의 쾌락 (pleasure)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탁월 (perfection)을 획득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 안녕이라고 본다. Ryff(1989)

역시 행복을 인류의 고유한 덕과 타인과 차별화되는 독특함을 깨닫고 실현하는 것으로 여겼다(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재인용).

인간이 근본적으로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가정에 기초한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정의하고자 하였는데 긍정적 심리학의창시자인 Seligman(2004)은 세 가지 행복한 삶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삶이며, 두번째로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집중함으로써 경쟁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삶이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의미를 찾고 부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다(최영출·이지혜, 2013 재인용).

한편 행복을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여기고 개 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국가나 사회시스템이 개입하여야 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이윤희, 2010; 우창빈, 2013; 이성윤. 2014; Lavard(2005)는 완전한 정보 상황이라는 고전 경제학의 가정을 비판적으 로 보았고, 개인의 선호는 주어진 것이 아닌 타인의 소유물과의 비교, 즉 사회적 지위 경쟁(status race)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 이 안전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즉, 개인은 사 회 안에서 존재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므로 행복은 사회적 부문 내에서 느끼는 감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개인을 둘러 싼 환경 또한 행복의 고려 요소이고, 여기에서 행복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정부가 국민의 행복 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 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행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행복(happiness)과 함께 삶의 질 (quality of life: QOL),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안녕(well-being) 이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그리고 쾌락(pleasure) 등 다양한 용어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영출·이지혜(2013)에 따르면 행복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의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한 만족이나 감정적 반응을 평가하더라도 행복의 핵심은 개인의 삶에 대한 통합적 평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복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그 용어들이 측정하려는 것의핵심은 거의 비슷하며, 각각의 개념 사이에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점을미루어 볼 때, 사소한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정영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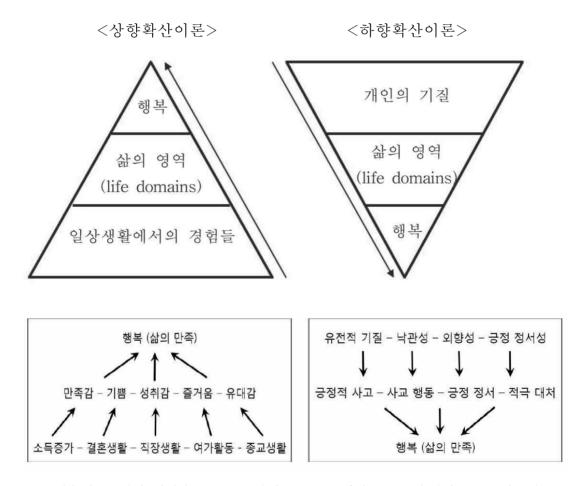
행복에 대한 정의는 사회과학의 모든 개념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Layard(2005)는 행복을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로서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선(self-evidently good)으로 정의했고, 최영출(2014)은 지역민들이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라고 정의했다(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재인용).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행복을 개인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이지은·강민성·이승종(2014)이 정의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감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행복의 확산에 관한 이론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이나 정책이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과 행복의 연결 관계를 이론적으로 살펴볼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에 따른 행복감이 하위 영역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하향 확산 관점이 아닌, 하위 영역에서의 개별적인 만족도가 개인의 궁극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향확산 이론의 관점에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행복의 확산에 대한 연구는 70년대에 직업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났는데(Loscocco, 1991), 여 기에서 확산이란 삶의 한 부분에서의 만족이 다른 부분에의 만족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재인용). Sirgy et al.(2001)은 확산 방향의 논의를 진전시켜 확산의 유형을 수평적 확산 (horizontal spillover)과 수직적 확산(vertical spillover)으로, 수직적 확산을 상향·하향 확산으로 구분했다. 수평적 확산은 직업, 가정, 지역사회등 삶의 각 영역에서의 만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반면, 수직적 확산은 상위수준과 하위수준의 만족 간의 관계를 주목하며, 상위수준 만족과 하위 수준 만족 간의 상호작용을 상향 또는 하향식 확산으로 설명한다(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재인용).

[그림2-1] 행복의 확산이론



* 그림출처: 고명철·최상옥(2012), 오민지(2016), 권석만(2008), 유민상(2016) 재구성

행복의 상향이론은 삶의 각기 다른 하위 영역에서의 경험이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삶의 질의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관점으로 이는 행복을 삶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주관적 평가가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즉, 행복은 개인의 객관적인조건 및 인지적 평가와 서로 이어져 있고,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경험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는 관점(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이 행복으로 이어지고, 부정적인 경험과 인식이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정영아, 2018).

반면에 행복의 하향이론은 개인의 심리적·기질적 측면으로부터의 전반적인 행복감이 삶의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다. 하향확산이론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Schmitt와 Mellon(1980)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직장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고, Morgeson과 Petrescu(2011)는 개인의 종합적 행복이 개별 영역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이윤경, 2018 재인용). 하향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삶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관계 없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긍정적인 사람은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든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 부정적인사람들은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하향이론에서는 개인의 경험과주관적 인식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질적 특성이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며, 각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 또한 개인의 특성에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정영아, 2018).

그동안 행복의 정도는 유전자와 성격, 기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하향이론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하향식 이론의 개인적 특성은 행복의 5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향식 이론의 환경적 특성은 행복의 8~23% 정도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mpton, 2005; 유민상, 2016 재인용). 예를 들어, Lykken and Tellegen(1996)의 쌍둥이 연구는 하향식 이론을 뒷받침한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자란 일란성 쌍생아(monozygotic)와 이란성 쌍생아

(dizygotic)의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 이란성 쌍생아의 행복도는 상관관계가 0에 가까운 반면 일란성 쌍생아의 행복도는 상관관계가 0.5 정도로 일란성 쌍생아들의 행복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는 일란성 쌍생아가 이란성 쌍생아 보다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행복은 유전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Lykken & Tellegen, 1996; 유민상, 2016 재인용).

상향이론과 하향이론 모두 어떤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행정학적 관점에서는 상향이론은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상향이론에 따르면, 삶의 경험과 주관적 인식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상향이론 관점에서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삶의 각 분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 조사를 통해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그것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행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욕구이론

개인의 욕구 충족정도는 행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데, 인간의 욕구체계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20세기에 종합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Maslow의 욕구단계설과 Alderfer의 ERG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Maslow의 욕구계층론은 가장 널리 알려진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론이다. Maslow는 인간 모두가 느끼는 공통의 욕구가 있다고 주장하며(Maslow, 1954), 인간은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고, 상위수준의 욕구충족이 더 큰 행복감과 자아성장을 가져온다(Maslow, 1970)고 주장했다.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 욕

구, 자기실현 욕구로 위계를 가지며 계층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현된다. 욕구계층론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파악하는 틀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다섯 가지 욕구의 계층이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계층의 우선순위가 개인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하위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 욕구가 더 이상 동기유발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의 욕구로서 존재한다는 점, 하나 이상의 욕구가 동시다발적으로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는 점, 습관과 같이욕구 이외에도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는 점, 어떠한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 욕구가 하향적으로 발휘될 수도 있다는 점과 같은 이론적인 한계를 가진다(오민지, 2016 재인용).

다음으로 Maslow의 욕구계층론을 포괄하여 발전시킨 Alderfer(1969, 1972)의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계층화하고 계층에 따라 욕구가 유발된다고 규정한 점에서 Maslow 욕구이론과 유사하지만, 지배적인 한 가지 욕구에 의해서만 유발된다는 Maslow와 달리, 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욕구의 방향이 전진적·상향적 진행뿐만 아니라 후진적·하향적 퇴행으로도 설명했는데, 이와 같이 세 단계의 욕구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상위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하위욕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Maslow의 욕구단계설이 가진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Maslow의 욕구계층론보다 더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된다(오민지, 2016 재인용).

[표2-1] Maslow와 Alderfer 개념 비교

Maslow의	욕구 5계층	Alderfer의 ERG 욕구계층	
생리적	부 욕구	생존욕구	
안전욕구	물리적 안전	생근폭工	
	신분보장		
사회적 욕구		관계욕구	
XX 07	타인의 인정		
존중 욕구	자기 존중	성장욕구	
자기실현 욕구		004十	

^{*} Schneider & Alderfer(1973), 오민지(2016) 재구성

제 2 절 선행연구

1.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논의

행복은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행복 측정이 가능한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학자들은 연령, 성별, 소득 등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나이, 소득, 교육수준, 직업, 결혼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영향력 있는 변수 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서은국·구재선(2011)이 한국사회에서 행복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회고식 평가방식과 경험표집 방 식으로 분석한 결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연령, 성별, 학력, 결혼여 부, 소득, 직업 등과 같은 외적, 상황적 요인보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자신이 하고 싶고 의미를 느끼는 일 을 할 때 행복했으며, 행복 경험은 이와 같은 내적 동기와 의미감에 의 해 주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국가행복도 향상을 위해서는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많은 연구에서 외적 요인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지범(2011)은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으로 소득, 세대, 가족, 직업, 교육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 였다. 오민지(2016)는 대한민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인간의 기본욕구 에 대한 만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Alderfer의 ERG이론(존재욕 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존욕구(건 강·경제·주거상태), 관계욕구(가족·이웃관계), 성장욕구(종교·여가·직장생 활)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 모두 행복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상위 단계인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복의 영향요인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일상생활에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이성윤, 2014).

1) 개인적 요인

(1) 경제적 요인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득은 행복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주요 변수로 분석되었다. 다만,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낮 아지고, 오히려 소득 불평등은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치므로 부의 편 중 완화라는 고민을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충선(2015)은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소득증가가 행복과 직결되 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 이론에 기반하여 한국인의 행복수준이 소 득증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했다. 분석결과, 소득이 행복을 결정하 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일반적인 한계효용 체감의 현상과 마찬가지 로 소득수준에 따른 행복도의 증가수준은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는 빠르 게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에서는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낮 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지범(2011)은 심리학과 행정학적 연구를 접목하 여 국민행복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를 다각도로 탐색하였다. 심층 면접 과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행복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행복을 증진하는 제도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행복감은 높아지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에는 영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과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행복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rev와 Stutzer(2002)도 비슷한 맥락에서 부유 한 국가의 국민이 가난한 나라 국민보다는 평균적으로는 행복하지만, 일 인당 GDP가 15,000달러를 넘으면 평균 소득이 국가 내 행복에 거의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데 Hagerty와 Veenhoven(2003, 2006)은 국민의 행복은 소득에

따라 증가하며 부유한 나라의 행복도 일부 가난한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Stevenson와 Wolfers(2008)도 개인 또는 국가 총체적인 관점과 관계없이 절대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도 커진다고 결론지었다(이내찬, 2012 재인용).

Ball and Chernova(2008)는 자가진단한(self-reported) 행복 정도가 절대적 소득수준 및 상대적 소득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개인의 절대적 소득수준과 국가 내에 위치한 개인의 상대적 소득수준 모두 행복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특히, 절대 소득수준의 변화보다 상대 소득수준의 변화가 행복감에 훨씬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윤, 2014 재인용). 구재선·서은국(2011)의 연구에서도 소득의 경우 객관적인 실제 소득보다 스스로고소득자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행복 수준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한편, 이내찬(2012)은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일부 변형하여 행복의 주요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충분한 소득 확보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을 제언했다.

(2) 인구통계학적 요인

행복의 조건으로 성별, 연령 등 인구 통계학적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 성별에 따른 행복의 정도는 많은 연구들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성이 여 성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이형규, 2018; 박상민, 2020)가 있는 반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Ryff, 1989; Ryff & Keyes, 1995; 김미곤, 2015), 남녀 간 행복감의 차이는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1; 정지범, 2011).

연령에 따른 행복의 정도 역시 학자들마다 다른 분석결과가 나와 한마디로 결론 내릴 수 없다. 젊은층이 노년층에 비해 더 행복하다는 연구

(정지범, 2011; 김미곤, 2015; 이형규, 2018), 나이의 영향이 없다는 연구 (구재선, 서은국, 2011), 나이 든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Bortner & Hultsch, 1970), 행복은 나이와 역U자형 관계가 있다는 연구(변미리 외, 2016)로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다(강예람, 2014 재인용).

(3) 사회적 요인

행복의 조건으로 정서적 안정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결혼, 가족, 직업, 교육 등의 사회적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많은 연구자들이 실시하였다.

대다수의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면 기혼자가 미혼, 이혼, 별거, 동거 상태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며(서은국 외, 2010; 임준홍·홍성효, 2014, 박상민, 2020) 일부 이와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도 있으나 이혼, 별거,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혼자보다 덜 행복하다는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통일되어 있다(Lucas, 2005; 강예람, 2014 재인용)

사회적 요인에서 교육이 행복에 미치는 순기능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사람이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변미리 외, 2016; 임준홍·홍성효, 2014; 박상민, 2020). 또한 실업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사람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는 결과 역시 행복의 영향요인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변미리 외, 2016; 임준홍·홍성효, 2014).

2) 환경적 요인

임근식(2012)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주거환경, 지역 애착, 교통환경, 안전환경, 사회적 여건, 교육환경, 쾌적한 환경, 기초생활여건 등의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 중주거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다음으로 비물질적 요소인 지역에

대한 애착심 향상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임준홍·홍성효(2014)는 주거환경으로 인한 개인 행복감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웃에 대한 신뢰, 환경오염, 문화예술 및 의료시설접근성이 개인의 행복감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거시설과 같은인프라적인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인프라적인 요소 보다는 사회 관계망이나환경요인 개선에 보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박상민(2020)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환경특성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점유형태가 자가일수록, 주택유형은 아 파트일수록, 거주기간은 장기일수록, 가구원수는 적을수록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

국민의 행복은 거의 모든 국가 목표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정부는 보편적 인간의 욕구인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정책의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처럼 행복은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식된다(최영출·이지혜, 2013). 이처럼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작은 정부의 옹호자들은 한 국가의 목표는 외부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범당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개인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주장은 작은 정부 이론이 일반적으로 비판받는 것처럼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작은 정부 이론의 기반이 되는 자유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시장 실패'가 문제다.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불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복지주의자들은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대부분의 국민들의 행복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가간 비교 자료를 보면 스웨덴, 핀란드 등 복지가 잘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의 국민행복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가 있으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단일한 모습이라기보다 매우 다양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매우 다양하다는 시사점 또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자유주의적시각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강조는 국가 행복정책 수립의필수 고려 사항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정지범, 2011).

행복이 궁극적 가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Layard(2005)는 다른 목표와 달리 행복은 그 자체로 명백한 재화(self-evidently good)이기때문에 최종적인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반대 입장은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한다. 또한 행복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과도한 개입 가능성도 우려했다. 다만 행복의 정치 과정과 방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정부가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행복의 정치를 우려하는 사람이라도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Ott, Jan(2010)은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한다. 그러한 근거로써 행복은 높이 평가될만한 결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시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한다. 행복은 국민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Veenhoven 2005; Jan Ott, 2010), 행복한 사람들은 정부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고 동시에 적대적인 성향이 덜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Jan Ott, 2010; 이성윤, 2014 재인용).

제 3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행복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행복을 정의내리기 어려운 문제로 삼아학문적 논의 차원에서 행복을 정의하거나 행복 측정 방법을 찾는데 집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욕구의 만족이 행복감과 연결된다는 욕구이론의 기본 전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간의 기본 욕구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은 매우 적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욕구이론의 관점에서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행복연구의 범주를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연구의 행정학적 논의이다.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사회학적·심리학적 학문을 기초로 행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행복연구를 행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지어 연구하고자 한다. 행복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연결함으로써 향후 국민행복의 증진을 위해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영향요인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둘째, 연구 범위의 확장 측면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행복에 관한 논의는 주로 행복을 정의하고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론의 측면에 집중한 것이 사실이다. 욕구이론 역시 조직 내 구성원의 동기부여나 소비자 등 개인의 욕구 파악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본연구는 욕구이론의 관점에서 행복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셋째, 표본의 대표성과 일반화 확보 측면이다. 지금까지 욕구이론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절대적인 수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행복 요소를 구분하는데 집중하거나, 특정 직업군이나 세대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등 한정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특정 직 업군 혹은 세대가 아닌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행 복도를 측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구별된다. 또한, 표본 의 수도 서울시 20,000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모형과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구·주택·경제·사회 특성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어떠한 요인에 의해 행복지수가 영향을 받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할지에 대한 정책적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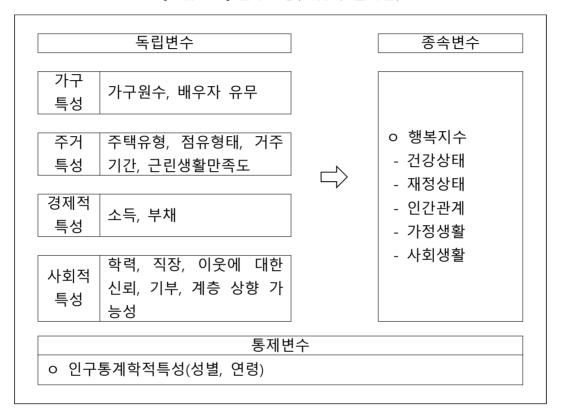
행복의 원인이나 결과는 가구특성이나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구의 가구특성 및 경제특성은 행복지수의 중요한 설명변 수이며, 이는 가구의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변화와 행복지수의 변화가 밀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자료의 제약 등을 감안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구특성, 주택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가구특성은 가구원수, 배우자 유무로 구성하였다. 주거특성은 주택형태, 주거점유형태, 거주기간, 근린생활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특성은 소득, 부채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특성은 학력, 이웃관계, 기부, 직장, 사회적 상향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하위변수로 구성하였다.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수히 많으며 이를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해 독립변수가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관련 통제변수는 가구주 개인 특성인 성별과 연령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개념적 준거틀)



한편, 개별 독립변수 항목들을 [표3-1]과 같이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Maslow와 Alderfer의 욕구계층 모델에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Maslow의 분류체계는 너무 세부적이므로 좀 더 포괄적인 Alderfer의 ERG 이론을 바탕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정한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가구·주거·경제적·사회적 특성에 대해 Alderfer의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해석하 고자 한다.

[표 3-1] 독립변수와 욕구이론관과의 관계

5	투립변수	Maslow의 욕구계층론	Alderfer의 ERG 이론	
가구특성	가구원수	사회적욕구	관계욕구	
77778	배우자 유무	사회적욕구	관계욕구	
	주택유형	안전욕구	생존욕구	
ᄌ기ᄐᄸ	점유형태	안전욕구	생존욕구	
주거특성 	거주기간	안전욕구	생존욕구	
	근린생활만족도	안전욕구	생존욕구	
경제적	소득	생리적욕구	생존욕구	
특성	부채	생리적·안전욕구	생존욕구	
	학력	자기실현욕구	성장욕구	
나를 제	직장	자기실현욕구	성장욕구	
사회적	이웃관계	사회적욕구	관계욕구	
특성	기부여부	존중욕구	관계욕구	
	계층상향가능성	자기실현 욕구	성장욕구	

2.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가구특성, 주택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의 각 특성별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이 중 특히 선행 연구 결과들이 혼재되어 나타났던 변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복지수의 영향요인에 대한 세부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구특성과 관련하여 가구원수는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김미곤(2015)은 한국인의 가구유형별 개인특성별 주관적 행복수준을 연구하였는데, 아동이 있는 가구는 행복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아동이 있으면 가구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구원수가 많으면 행복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우자 유무에 대한 특성으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안정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미곤(2015)의 연구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행복수준이 낮게 나타

났다고 분석하였다.

주거특성과 관련해서는 주택유형(아파트)은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거주 및 관리 편리성으로 가장선호되는 주택형태이므로 일반주택보다 행복지수가 높을 것이다. 이와관련한 선행연구로는 박상민(2020)이 존재한다. 또한, 전세나 월세 등 타가가구보다 자가가구가 행복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가구는 대부분 2년을 주기로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주기간의 제약으로 인해잦은 주거이동이 필요하고,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가가구보다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박상민(2020)의 연구가 있다. 다음으로 근린생활만족도는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주거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험이나 사회적 환경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주거환경이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영향력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녹지환경만족도, 운동적합성, 공공시설 편의성과 같은 항목의 근린생활만족도는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 특성 중 하나인 소득은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김충선(2015), 정지범(2011)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부채는 행복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이자 감당에 대한 부담으로 행복지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미곤(2015)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있는 가구의 행복수준이 낮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학력은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Helliwell & Putnam, 2004). 직장은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곤(2015)은 실업자가 있는 가구의 행복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이웃에 대한 신뢰는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정영아(2018)는 사회신뢰, 계층 이동 가능성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쳐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층 상향 가능성은 행복지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과 관련하여 계층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질수록 행복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객관적 지위와 독립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한국은 중간 귀속 의식이 매우 강해서 객관적 지표와는 별개의 영향을 나타낸다(김병조, 2000). 정영아(2018)는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의 경우 강한 정(+)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기부는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 등 이타적인 행위가 대체로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 대다수이다(이지은·강민성·이승종, 2014). 강철희·최명민·김수연(2012)는 기부, 사회적 신뢰, 행복감 간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행복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기부동기가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모형을 토대로 일반가구의 가구특성, 주택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에 따라 행복지수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가구특성, 주택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가구특성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1.	가구원수는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2.	배우자는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주거특성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1.	주택유형(아파트)은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2.	점유형태(자가)는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3.	거주기간은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4.	근린생활만족도는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경제적 특성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1.	소득은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2.	부채는 행복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사회적 특성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1.	학력은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2.	직장은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3.	이웃관계는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4.	기부는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ĺ
1-4-5.	계층 상향 가능성은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l

마지막으로 가구·주택·경제적·사회적 특성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2] 가구특성, 주택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별로 다를 것이다.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행복지수와 관련된 영향요인은 선행연구에서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며, 욕구이론가들은 인간이 욕구 충족여부에 따라 행복감과 불행함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행복은 다양한 개별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lderfer는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구분하여 세 단계의 욕구가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Alderfer의 욕구계층으로 구분 가능하며, 행복의 상향확산이론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가구특성

가구특성은 가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의미하며, 가구특성 변수는 가구원수와 배우자 유무로 구성하였다. 가구원수는 1인(1), 2인(2), 3인(3), 4인 이상(4)으로 연속변수화하고, 배우자 유무 여부는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으로 구성하였다.

2) 주거특성

주거특성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주변환경의 만족도를 의미하며, 주거특성 변수는 현재 거주 주택의 주택 유형, 점유형태, 거주기간, 근린생활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주택유형은 아파트(1), 그 외(0)로 조작화하였는데, 그 외에 포함되는 주택유형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이 있다. 점유형태는 현재주택의 점유형태로 자가(1), 타가(0)로 정의하였다. 이때 타가에는 전세, 월세, 사글세, 무

상 등을 포함한다. 거주기간은 현재 사는 집의 총 거주기간을 의미하며, 3년이하(1), 3년~5년 미만(2), 5년~10년 미만(3), 10년 이상(4)로 연속변수화하였다. 근린생활만족도는 거주하는 집 근처 1km 지역(걸어서 15분거리)에 대한 녹지환경, 운동적합성, 공공시설 이용편의성, 안전에 대한 만족도에 해당한다. 근린생활만족도는 만족도에 따라 매우 불만족(1), 약간 불만족(2), 보통(3), 약간 만족(4), 매우 만족(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3) 경제적 특성

경제적 특성은 가구가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을 의미하며, 경제적 특성 변수는 소득, 부채로 구성하였다. 소득은 지난 1년 동안(2018.9.1.~ 2019.8.31.) 세금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으로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한 소득으로 측정한다. 100만 원 미만(1),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2),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4), 400만원 이상(5)로 연속변수 화하였다. 부채는 부채있음(1), 부채없음(0)으로 정의한다.

4) 사회적 특성

사회적 특성 변수는 학력, 직장, 이웃관계, 기부여부, 계층 상향 가능성으로 구성하였다. 학력은 무학(1), 초등학교·중학교(2), 고등학교·전문대·대학교(3), 대학원졸 이상(4)으로 연속변수화하였다. 직장은 유직(1), 학생(2), 주부를 포함한 무직(3)으로 조작화하였다. 이웃관계는 이웃의도움 여부와 이웃에 대한 신뢰로 구성하였다. 이웃의 도움 여부는 '우리동네 사람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려 한다'는 문항에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음(1), 별로 동의하지 않음(2), 보통(3), 다소 동의(4), 매우 동의(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이웃에 대한 신뢰는전혀 신뢰 안함(1), 별로 신뢰 안함(2), 보통(3), 다소 신뢰(4), 매우 신뢰

(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기부여부는 지난 1년간 기부여부에 대해 기부한적 있음(1), 기부한적 없음(0)으로 구성하였다. 기부한적 있음은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 모금 단체를 통한 후원, 물품 후원 단체를 통한 후원, 종교 단체를 통한 후원, 직장을 통한 후원 등을 포함한다. 계층 상향 가능성은 우리 사회에서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매우 낮다(1), 다소 낮다(2), 보통이다(3), 다소 높다(4), 매우 높다(5)) 결과를 연속변수화하였다.

2. 종속변수: 행복지수(건강상태, 재정상태, 인간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복지수의 하위 측정항목은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변 사람과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산술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척도는 1점 가장 불행한 상태로부터 10점 가장 행복한 상태까지 리커트 10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3. 통제변수

여러 선행연구에서 행복지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주의 개인특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내적타당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성별은 남자(1), 여자(0), 연령은 가구주의 만 나 이로 연속변수화하여 설정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일 경우 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선정한다. 김미곤 (2015)은 한국인의 가구유형별 개인특성별 주관적 행복수준을 연구하였 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행복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 복수준이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성별, 연령이 행복지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통제변수로 설정함으로써 회귀분석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통제변수와 함께 정리한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Ξ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세부내용
종	속변수	행복지수	건강상태, 재정상태, 인간관 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연속(10점척도)
	가구	가구원수	가구주 포함 총 가구원 수	연속변수
	특성	배우자 유무	가구주의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주택유형	아파트, 단독 등 주택유형	아파트=1 기타=0
	주거	점유형태	현재 거주 주택의 자가 또는 타가 여부	자가=1 타가=0
	특성	거주기간	현재 거주 주택의 거주기간	연속변수
		근린생활 만족도	녹지 운동적합성 공공시설 편의성	연속(5점척도)
		소득	월평균 총 가구소득	연속변수
독립 변수	경제적 특성	부채	부채 유무 여부	부채있음=1 부채없음=0
也干		학력	가구주의 학력	무학=1 중졸이하=2 대졸이하=3 대학원졸이상=4
	사회적 특성	직장	직장 유무 여부	직장있음=1 학생=2 무직(주부포함)=3
	70	이웃관계	이웃의 도움 가능성 이웃에 대한 신뢰	연속(5점척도)
		기부여부	최근 1년간 기부여부	기부했음=1 기부안함=0
		계층 상향 가능성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향 가능성 인식측정	연속(5점척도)
통제	데 변 수	성별	가구주의 성별	남자=1, 여자=0
		연령	가구주의 만 나이	연속변수

제 3 절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의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수를 대상으로 수행한 「2020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활용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생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20,000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시민 삶의 질 및 의식, 가치관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서울시의 현 상태를 과학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이 본 조사의 목표이다.

2020년 서울서베이의 조사대상은 인구와 가구, 경제, 주거와 생활과 교육과 보육,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 분야이다. 조사방법은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주를 직접 인터뷰하는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원칙으로 하였다.

모집단은 세대주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대로 모집단의 크기는 주민 등록 및 과세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동별, 주택유형별 세대수를 파악하여 설정하였다. 표본 오차는 가구 데이터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0.47%p 이다.

[표 3-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표본설계 개요

구분	세부내용
조사주기	- 2003년 이후 매년 실시
모집단	- 서울시 거주 가구 및 만15세 이상 가구 구성원
	- 인구와 가구, 지속가능한 성장, 스마트시티, 포용, 웰빙,
조사내용	미래도시, 안전도시, 복지도시, 균형도시, 민주도시 등
	총 10개 분야 및 BSC(균형성과관리)지표에 관련된

	사항, 가구조사 기본 문항
조사기간	- 2019년 9월 1일 ~ 9월 30일
조사방법	- 가구 방문 면접조사
표본크기	- 20,000가구(만15세 이상 가구원 43,737명)
프본오차	- 가구 : 95% 신뢰수준에서 ±0.69%p
표근 도시	- 가구원 : 95% 신뢰수준에서 ±0.47%p
표본추출방법	- 층화집락추출법

출처: 2020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2020.4, p4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집한 데이터는 사회과학 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통계패키지 프로 그램인 SAS 9.4를 활용하였다.

첫째, 각 설명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조사 대상의 일반적 현황을 분석하고,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행복지수가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구·주거·경제적·사회적 특성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주거·경제적·사회적 특성을 독립변수, 행복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응답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종합)

변수	범주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6,092	80.5
() 달 	여성	3,908	19.5
	10대	16	0.1
연령	20~30대	3,990	20.0
20	40~50대	8,882	44.4
	60대 ~	7,112	35.6
	무학	166	0.8
학력	중졸 이하	2,285	11.4
77	대졸 이하	17,105	85.5
	대학원졸이상	444	2.2
	직장있음	16,590	83.0
직장	학생	123	0.6
	무직(주부 포함)	3,287	16.4
	100만원 미만	741	3.7
	100~200 미만	1,736	8.7
월평균가구소득	200~300 미만	2,811	14.1
	300~400 미만	3,475	17.4
	400만원 이상	11,237	56.2
	3년 미만	3,099	15.5
거주기간(년)	3년∼5년 미만	3,571	17.9
기구기진(단)	5년~10년 미만	5,460	27.3
	10년 이상	7,870	39.4
	1인가구	3,564	17.8
가구원수 	2인가구	5,631	28.2

변수	범주	빈도	비율(%)		
	3인가구	5,853	29.3		
	4인가구 이상	4,952	24.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718	73.6		
메구자 ㅠㅜ	배우자 없음	5,282	26.4		

빈도분석을 통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해보면 [표 4-1] 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80.5%, 여성이 19.5%로 나타났다. 연령은 10대, 20~30대, 40~50대, 60대 이후로 구분하였으며 10대가 0.1%, 20~30대가 20%, 40~50대가 44.4%, 60대 이후가 35.6%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무학 0.8%, 중졸 이하 11.4%, 대졸 이하 85.5%, 대학원졸 이상 2.2%로 나타났다. 직장은 직장이 있는 경우 83%, 주부를 포함한 무직이 16.4%, 학생이 0.6%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의 경우 400만원 이상 56.2%, 300~400만원 미만 17.4%, 200~300만원 미만 14.1%, 100~200만원 미만 8.7%, 100만원 미만 3.7%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39.4%, 5년~10년 미만 27.3%, 3년~5년 미만 17.9%, 3년 미만 15.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3인가구 29.3%, 2인가구 28.2%, 4인가구이상 24.8%, 1인가구 17.8%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3.6%, 미혼·이혼·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26.4%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표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뱐	<u> </u>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	속변수	행부	복지수	6.82	1.12	0.4	10
	가구특성 가구특성	가=	구원수	2.64	1.11	1	7
	71778	배우	자 유무	0.74	0.44	0	1
		주틱	택유형	0.41	0.49	0	1
독립		점위	우형태	0.58	0.49	0	1
변수	ᄌᆡᄐᄊ	거리	주기간	9.18	8.18	0	64
	주거특성	근린	녹지	3.36	0.75	1	5
		생활	운동	3.67	0.72	1	5
		만족도	공공시설	3.62	0.76	1	5

뱐	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제적	_	소득	9.33	4.10	1	19
특성	<u>t</u>	부 채	0.50	0.50	0	1
	<u>-</u>	학력	4.78	1.24	1	7
 사회적	2	직업	1.33	0.74	1	3
	이웃	도움	3.23	0.81	1	5
특성	관계	신뢰	3.10	0.81	1	5
	계층 싱	향 가능성	2.87	0.85	1	5
 제변수	7	성별	0.80	0.40	0	1
 세인ㅜ	L		53.51	14.37	18	96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4-2]와 같다. 종속변수인 행복지수는 평균 6.82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표준편차는 1.12였다.

독립변수인 가구원수는 평균 2.64명이고 표준편차는 1.11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척도의 기준이 명목척도에 불과하므로 평균값이나 최소 값, 최대값이 가지는 의미가 다른 변수에 비해 크지 않다. 다만, 배우자 의 경우 평균이 0.74로 배우자 있음(1)이 배우자 없음(0) 보다 많다는 것 을 예측할 수 있고, 주택유형 역시 평균 0.41로 아파트 외 주택(0) 유형 이 아파트(1) 보다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점유형태도 마찬가지로 평균 0.58로 자가(1)가 타가(0) 보다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평균 9.18년, 표준편차는 8.18로 나타났다. 근린생활만족도(5점 만 점) 중 녹지는 평균 3.36점, 표준편차는 0.75, 운동 적합성 항목은 평균 3.67점, 표준편차 0.72, 공공시설은 평균 3.62점, 표준편차 0.76로 나타났 다. 월평균가구소득은 50만원미만(1)~900만원 이상(19) 구간 중 평균은 9.33으로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구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표준편차는 4.1임을 알 수 있었다. 부채 유무는 척도의 기준이 명목척 도이며, 평균이 0.50이므로 부채있음(1)과 부채없음(0)의 해당 표본 수가 같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학력은 무학을 1, 대학원 졸업이상을 7로 할 때 평균이 4.78로 고졸(4)과 전문대졸(5) 사이로 나타났다. 명목변수인 직업 의 평균은 1.33으로 직업있음(1), 학생(2), 직업없음(3) 중 직업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웃관계는 이웃의 도

움에 대한 항목은 평균 3.23점, 표준편차 0.81, 이웃에 대한 신뢰 항목은 평균 3.10점, 표준편차 0.81로 나타났다. 전체 변수 중 가구원수, 거주기 간, 소득, 학력의 경우 범주화된 변수를 사용할 경우 평균이 왜곡되므로 원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분석했다.

통제변수 중 성별은 명목변수로 평균은 0.80이다. 남자(1)가 여자(0)보다 많음을 예측할 수 있다. 나이는 평균 53.51세이며 최고령자는 96세이다.

2. 주요 변수의 응답자 유형별 측정결과

1) 응답자 특성에 따른 행복지수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행복지수는 [표 4-3]과 같다.

[표 4-3] 응답자의 유형별 행복지수

I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	전 체	20,000	6.822	1.116	0.4	10
	1인가구	3,564	6.475	1.321	0.4	10
	2인가구	5,631	6.744	1.118	1.4	10
가구원수	3인가구	5,853	6.930	1.024	1	10
	4인가구 이상	4,952	7.032	0.982	1.2	10
배우자	배우자 있음	14,718	6.941	1.023	1.2	10
유무	배우자 없음	5,282	6.491	1.286	0.4	10
 주택유형	아파트	8,186	6.896	1.079	1	10
十門 田 8	아파트 외 주택	11,814	6.771	1.139	0.4	10
되 O 원 ell	자가	11,649	6.786	1.088	0.4	10
점유형태	타가	8,351	6.873	1.153	1	10
	3년 미만	3,099	7.016	1.090	2.2	10
거주기간	3년 ~5년 미만	3,571	6.974	1.073	1	10
	5년 ~ 10년 미만	5,460	6.902	1.023	1	10
	10년 이상	7,870	6.621	1.175	0.4	10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00 미만	741	5.486	1.432	1	8.8
월평균	100~200	1,736	6.129	1.254	0.4	9.2
가구소득	200~300	2,811	6.739	1.137	2.6	10
(만원)	300~400	3,475	6.880	1.033	1	10
(= = /	400 이상	11,237	7.020	0.976	1.2	10
부채	대출있음	10,000	6.923	1.074	1.6	10
一个们	대출없음	10,000	6.721	1.148	0.4	10
	무학	166	5.257	1.400	1.8	8.8
학력	중졸이하	2,285	5.973	1.299	0.4	10
릭덕	대졸이하	17,105	6.942	1.022	1	10
	대학원졸이상	444	7.159	1.089	3.8	9.8
	직장 있음	16,590	6.959	1.018	1.2	10
직장	학생	123	7.211	1.024	3.8	9
	직장 없음	3,287	6.115	1.308	0.4	10
성별	남성	16,092	6.907	1.061	0.4	10
~ ~ ~ ~ ~ ~ ~ ~ ~ ~ ~ ~ ~ ~ ~ ~ ~ ~ ~	여성	3,908	6.471	1.261	1	10
	10대	16	6.750	1.240	4.4	8.4
어 검	20~30대	3,990	7.175	0.951	2.6	10
연령	40~50대	8,882	6.971	1.017	2.4	10
	60대 이상	7,112	6.439	1.208	0.4	10

응답자 유형별 행복지수를 살펴본 결과, 가구원수의 경우 4인이상, 3인, 2인, 1인 순이었고, 배우자 유무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주택형태는 아파트, 주거점유형태는 타가가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거주기간은 짧을수록, 월평균가구소득은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경우 대출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고, 학력의 경우 대학원 이상, 대졸, 중졸, 무학 순이었다. 직장의 경우 학생, 직장있음, 직장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의 경우 20~30대, 40~50대, 10대, 60대 이후 순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변수간의 상관분석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통제변수를 제외한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 변수들 간에 유의수준 0.05하에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0.2 미만으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독립변수간 상관관계가 나타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다중공선성이랑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높아 회귀분석시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설명변수 간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이는 두 변수간 공선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 간 상관계수가 0.8 이상인 변수들이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보인다. 보다 상세한 다중공선성에 대한 검증은 다음 절(제 3절. 다중회귀분석)에서 추가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 4-4]와 같다.

[표 4-4] 상관분석 결과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가구	상관 계수	1	0.650	0.117	0.183	0.088	0.004	-0.010	-0.008	0.593	0.221	0.235	-0,264	-0.023	0.009	0.111	0.072	0.412	-0.154
원수	유의 확률		<.0001	<.0001	<.0001	<.0001	0.536	0.174	0.236	<.0001	<.0001	<.0001	<.0001	0.001	0.190	<.0001	<.0001	<.0001	<.0001
2 배우	상관 계수	0.650	1	0.109	0.223	0.117	-0.009	0.003	-0.003	0.459	0.162	0.204	-0.195	-0.013	0.021	0.074	0.069	0.678	-0.026
자유 무	유의 확률	<.0001		<.0001	<.0001	<.0001	0.193	0.656	0.660	<.0001	<.0001	<.0001	<.0001	0.062	0.003	<.0001	<.0001	<.0001	0.000
3 주택	상관 계수	0.117	0.109	1	0.115	0.027	0.052	0.061	0.029	0.104	0.046	0.052	0.020	0.021	0.025	0.032	0.023	0.035	0.032
- 유형 	유의 확 <u>률</u>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4	0.003	0.000	<.0001	0.001	<.0001	<.0001
4 점유	상관 계수	0.183	0.223	0.115	1	0.437	0.021	0.032	-0.001	0.073	-0.083	-0.070	0.128	0.049	0.053	0.007	-0.009	0.108	0.418
형태	유의 확률	<.0001	<.0001	<.0001		<.0001	0.002	<.0001	0.836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301	0.197	<.0001	<.0001
5 거주 기간	상관 계수	0.088	0.117	0.027	0.437	1	0.034	0.048	0.011	-0.065	-0.132	-0.196	0.235	0.092	0.089	-0.036	-0.079	0.025	0.518
기간	유의 확률	<.0001	<.0001	0.000	<.0001		<.0001	<.0001	0.12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6 녹지	상관 계수	0.004	-0.009	0.052	0.021	0.034	1	0.210	0.192	-0.009	-0.021	0.009	0.055	0.142	0.081	0.015	0.052	-0.013	0.038
· 환경	유의 확 <u>률</u>	0.536	0.193	<.0001	0.002	<.0001		<.0001	<.0001	0.207	0.033	0.214	<.0001	<.0001	<.0001	0.035	<.0001	0.073	<.0001
7 운동 적합	상관 계수	-0.010	0.003	0.061	0.032	0.048	0,210	1	0,264	-0.025	-0.058	-0.003	0.055	0.297	0.181	-0.013	0.094	-0.016	0.056
적합 성 -	유의 확률	0.174	0.656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0.651	<.0001	<.0001	<.0001	0.061	<.0001	0.026	<.0001
8 공공 시설	상관 계수	-0.008	-0.003	0.029	-0.001	0.011	0.192	0.264	1	0.011	-0.020	0.021	0.010	0.226	0.125	0.013	0.047	-0.006	-0.003
시설	유의 확률	0.236	0.660	<.0001	0.836	0.121	<.0001	<.0001		0.134	0.005	0.003	0.152	<.0001	<.0001	0.060	<.0001	0.401	0.667
10	상관 계수	0.593	0.459	0.104	0.073	-0.035	-0.009	-0.025	0.011	1	0.241	0.452	-0.512	-0.026	-0.015	0.156	0.144	0.345	-0.343
소득 	유의 확률	<.0001	<.0001	<.0001	<.0001	<.0001	0.207	0.000	0.134		<.0001	<.0001	<.0001	0.000	0.033	<.0001	<.0001	<.0001	<.0001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1	상관 계수	0.221	0.162	0.046	-0.083	-0.132	-0.021	-0.058	-0.020	0.241	1	0.166	-0.225	-0.048	-0.051	0.124	0.036	0.139	-0.257
부채	유의 확률	<.0001	<.0001	<.0001	<.0001	<.0001	0.033	<.0001	0.005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12	상관 계수	0.235	0.204	0.052	-0.070	-0.196	0.009	-0.003	0.021	0.452	0.166	1	-0.475	-0.066	-0.043	0.148	0.112	0.242	-0.475
학력	유의 확률	<.0001	<.0001	<.0001	<.0001	<.0001	0.214	0.651	0.003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13	상관 계수	-0.264	-0.195	0.020	0.128	0.235	0.055	0.055	0.010	-0.512	-0.225	-0.475	1	0.071	0.089	-0.109	-0.118	-0.230	0.544
직장	유의 확률	<.0001	<.0001	0.004	<.0001	<.0001	<.0001	<.0001	0.15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14 이웃 도움	상관 계수	-0.023	-0.013	0.021	0.049	0.092	0.142	0.297	0.226	-0.026	-0.048	-0.066	0.071	1	0.235	-0.075	0.090	-0.029	0.081
도움	유의 확 <u>률</u>	0.001	0.062	0.003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15 이웃	상관 계수	0.009	0.021	0.025	0.053	0.089	0.081	0.181	0.125	-0.015	-0.051	-0.043	0.039	0.235	1	-0.057	0.131	-0.020	0.097
신뢰	유의 확률	0.190	0.003	0.000	<.0001	<.0001	<.0001	<.0001	<.0001	0.033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5	<.0001
16	상관 계수	0.111	0.074	0.032	0.007	-0.036	0.015	-0.013	0.013	0.156	0.124	0.148	-0.109	-0.075	-0.057	1	0.019	0.034	-0.130
기부 여부	유의 확률	<.0001	<.0001	<.0001	0.301	<.0001	0.035	0.061	0.06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9	<.0001	<.0001
17 상향 가능	상관 계수	0.072	0.069	0.023	-0.009	-0.079	0.052	0.094	0.047	0.144	0.036	0.112	-0.118	0.090	0.131	0.019	1	0.046	-0.123
가능 성 _	유의 확률	<.0001	<.0001	0.001	0.197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9		<.0001	<.0001
18	상관 계수	0.412	0.678	0.065	0.108	0.025	-0.013	-0.016	-0.006	0.345	0.139	0.242	-0.230	-0.029	-0.020	0.034	0.046	1	-0.116
성별	유의 확률	<.0001	<.0001	<.0001	<.0001	0.000	0.073	0.026	0.4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5	<.0001	<.0001		<.0001
19	상관 계수	-0.154	-0.026	0.032	0.418	0.518	0.038	0.056	-0.003	-0.343	-0.257	-0.475	0.544	0.081	0.097	-0.130	-0.123	-0.116	1
연령	유의 확률	<.0001	0.000	<.0001	<.0001	<.0001	<.0001	<.0001	0.667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1. 다중공선성 검증

독립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변수간의 선형관계가 나타날 때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한다고 한다. 다중공선성은 모형에 포함되는 설명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아 회귀모형에서 각 변수 간상관관계 정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회귀분석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분산팽창요인(VIF)이 10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모형에서 해당 요인을 배제한다(이희연·노승철, 2013).

공선성 검증을 통해 독립변인들에 대한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의 공차한계는 0.157에서 0.958 사이로 모두 0.1 이상이었다. 이를 통해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다중공선성 검증

		Type II Tolerance (공차한계)				
		상수		104.793		
		키그이스	1인	0.239		
		가구원수 (ref=4인이상)	2인	0.510		
	가구특성	(101 42 916)	3인	0.638		
		배우자 유무 (ref=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0.259		
독립		주택유형 (ref=아파트 외 주택)	아파트	0.958		
변수		점유형태 (ref=타가)	자가	0.687		
	주거특성	ᆌᄌᆌᆌ	3년이하	0.587		
		거주기간 (ref=10년 이상)	3년∼5년 미만	0.665		
		(101 101: 918)	5년~10년 미만	0.707		
		근린생활 만족도	녹지환경	0.925		

		구분		Type II Tolerance (공차한계)
			운동 적합성	0.835
			공공시설	0.885
			1백만원 미만	0.552
		소득	1백만원이상~ 2백만원 미만	0.557
	경제적 특성	ㅗ득 (ref=4백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3백만원미만	0.678
	Г0		3백만원 이상~ 4백만원미만	0.842
		부채 (ref=없다)	있다	0.875
		- LI-1	고졸이하	0.673
		학력 (ref=대학원졸이상)	전문대졸이하	0.157
		(101 11 1 1 2 4 6)	대졸이하	0.172
		직장	직장있음	0.517
	사회적	(ref=무직(주부 포함)	학생	0.818
	특성	이웃관계	이웃도움	0.839
		이웃전계	이웃신뢰	0.905
		기부여부 (ref=기부경험없음)	기부경험 있음	0.947
		계층 상향 가능성	사회경제적 지위상향	0.938
통제	인구 통계학적	성별 (ref=여)	남	0.514
변수 	특성	연령	가구주의 만 나이	0.400

2. 다중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서울시 일반가구의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행복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전체 가구 대상 분석결과

[표 4-6] 전체 가구 다중회귀분석 결과

						행토	 ¦지수		
		구분		Coef.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 오차)	t Value	Pr > t	95% Confidence	
		상수		5.318	0.096	55.56	<.0001	5.130	5.505
		 가구원수	1인	0.205***	0.037	5.54	<.0001	0.133	0.278
	٦L	(ref=4인이	2인	0.055**	0.022	2.57	0.010	0.013	0.098
	귀	상)	3인	-0.053***	0.019	-2.77	0.006	-0.090	-0.015
	가 구 특 성	배우자 유무 (ref=배우 자 없음)	배우자 있음	0.327***	0.031	10.57	<.0001	0.266	0.387
		주택유형 (ref=아파트 외 주택)	아파트	0.058***	0.014	4.05	<.0001	0.030	0.087
		점유형태 (ref=타가)	자가	0.063***	0.017	3.69	0.000	0.029	0.096
	주 거 특 성	거주기간 (ref=10년 이상)	3년이하	0.077***	0.025	3.06	0.002	0.028	0.125
			3년~5년 미만	0.085***	0.022	3.84	0.000	0.042	0.129
			5년~10 년 미만	0.053***	0.018	2.84	0.005	0.016	0.089
독		근린생활 만족도	녹지환경	0.018*	0.010	1.93	0.054	0.000	0.037
독립변수			운동적합성	0.120***	0.010	11.42	<.0001	0.099	0.140
			공공시설	0.083***	0.010	8.61	<.0001	0.064	0.102
			1백만원 미만	-0.883***	0.049	-17.88	<.0001	-0.980	-0.786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0.416***	0.033	-12.63	<.0001	-0.481	-0.352
	경 제 적 특 성	소득 (ref=4백만 원 이상)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0.106***	0.024	-4.37	<.0001	-0.153	-0.058
	성		3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0.091***	0.020	-4.55	<.0001	-0.130	-0.052
		부채 (ref=없다)	있다	-0.029**	0.015	-1.97	0.049	-0.058	0.000

						행与	¦지수				
		구분		Coef.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 오차)	t Value	Pr > t	95% Confidence Limits			
			무학	-0.817***	0.093	-8.77	<.0001	-0.999	-0.634		
		학력 (ref=대학	초등학교, 중학교	-0.351***	0.055	-6.38	<.0001	-0.459	-0.243		
		원졸이상)	고등학교, 대학교	-0.116**	0.047	-2.45	0.014	-0.209	-0.023		
	사 회	직장 (ref=무직	직장있음	0.128***	0.026	5.01	<.0001	0.078	0.179		
	의 적	(주부 포함))	학생	0.597***	0.098	6.1	<.0001	0.405	0.789		
	적 특 성	이웃관계	이웃도움	0.112***	0.009	11.89	<.0001	0.093	0.130		
	성	이굿판게	이웃신뢰	0.122***	0.009	13.64	<.0001	0.105	0.140		
		기부여부 (ref=기부 경험없음)	기부경험 있음	0.014	0.015	0.96	0.339	-0.015	0.044		
		계층 상향 가능성	사회경제적 지위상향	0.169***	0.008	19.95	<.0001	0.152	0.185		
통 제	이구통계하저특성	성별 (ref=여)	남	-0.006	0.024	-0.26	0.792	-0.054	0.041		
변 수	하저빠성	연령	가구주의 만 나이	-0.014***	0.001	-18.33	<.0001	-0.015	-0.012		
		관측치		20,000							
		R ²		0.231							
		F		213.83							

***p<0.01, **p<0.05, *p<0.1

[표4-6]는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종속변수인 행복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3.1%로 나타났고(R²=.231),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213.83, p<0.001).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기부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연령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으로 확인된 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특성 중에서는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원수',

'배우자 유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적어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특성에서는 '주택유형', '점유형태', '거주기간', '근린생활만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아파트일수록, 점유형태는 자가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3년~5년 미만, 3년 이하,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순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생활만족도는 녹지환경이 높아질수록, 운동 적합성이 높아질수록, 공공시설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에서는 '소득'과 '부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가 없는 경우 부채가 있는 경우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특성에서는 '학력', '직장', '이웃관계', '상향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력은 높아질수록, 직장은 학생, 유직, 무직 순으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는 이웃에 대한 도움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상향 가능성인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부여부는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성별은 행복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계수(Unstandardized Coefficients)는 편회귀 계수 추정치로 다른 독립변수들이 일정한 상태에서 해당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가 변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곧 각 독립변수들인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의 항목들이 1씩 상승할 때 종속변수인행복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각 독립

변수 항목이 1씩 상승할 때, 행복지수는 최소 - 0.883에서 최대 0.597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계수의 값은 직장변수 중 학생 (0.597), 유배우자(0.327), 1인가구(0.205), 계층상향 가능성(0.169), 유직 (0.128) 순으로 높았다. 반대로 소득, 학력이 낮을수록 비표준화계수 값이 낮았다. 소득은 100만원 미만의 경우 비표준화 계수가 - 0.883로 가장 낮았으며, 학력 중 무학의 경우 - 0.817로 그 다음으로 낮았다.

이와 같이 비표준화계수가 높거나 낮은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 비표준화계수가 높은 편인학생, 계층 상향 가능성, 유직 변수는 Alderfer의 생존, 관계, 성장의 3가지 욕구계층 중 가장 상위단계인 성장욕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표준화계수가 두 번째로 낮은 변수는 무학 변수였는데, 성장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행복지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가구원수가 1인일 때 비표준화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계적 욕구가 행복지수에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욕구로 분류가능한 소득은 비표준화계수가 가장 낮아 생존욕구 중 소득항목이 행복지수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종 제곱합은 독립변수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변수가 종속 변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 나타낸다. [표4-7]의 제3종 제곱합의 값으로 보아, 독립변수 중 계층 상향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과 연령,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의 도움에 대한 인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특성, 부채, 기부, 성별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계층상향 가능성이었는데 이를 통해 미래의 계층상향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이 행복지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계층상향 가능성은 비표준화계수의 값도 높 은 편이었는데 이는 타인과의 비교 경쟁세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에서 서울시 주민의 계층 상향 가능성 인식은 2.87점으로 본인이 속한 계층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있는데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제3종 제곱합 분석결과

	변수명	DF	Type III SS(제3종 제곱합)	Mean Square	F Value	Pr > F	순위
フ	l구원수	3	56.919	18.973	19.77	<.0001	10
배우	우자 유무	1	107.227	107.227	111.71	<.0001	8
주	택유형	1	15.769	15.769	16.43	<.0001	13
점	유형태	1	13.078	13.078	13.62	0.000	14
フ	점유형태 거주기간		16.987	5.662	5.90	0.001	12
근린	그린 녹지환경		3.572	3.572	3.72	0.054	16
생활	운동적합성	1	125.084	125.084	130.31	<.0001	6
만족도	공공시설	1	71.180	71.180	74.15	<.0001	9
	소득	4	344.504	86.126	89.72	<.0001	2
	부채	1	3.722	3.722	3.88	0.049	15
	학력	3	122.524	40.841	42.55	<.0001	7
	직장	2	49.296	24.648	25.68	<.0001	11
0	웃 도움	1	135.753	135.753	141.42	<.0001	5
0	웃 신뢰	1	178.716	178.716	186.18	<.0001	4
フ	부여부	1	0.879	0.879	0.92	0.339	17
계층 성	계층 상향 가능성		381.885	381.885	397.84	<.0001	1
	성별	1	0.067	0.067	0.07	0.792	18
	연령		322.409	322.409	335.88	<.0001	3

2) 청년층, 중장년층, 노인층 비교분석결과

[표 4-8] 청년층 다중회귀분석 결과

						행복	복지수		
		구분		Coef.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 오차)	t Value	Pr > t		nfidence nits
		상수		5.018	0.283	17.7	<.0001	4.462	5.574
		가구원수	1인	0.134*	0.075	1.8	0.072	-0.012	0.281
	가	(ref=4인이	2인	0.000	0.050	0	0.998	-0.099	0.098
	구.	상) 	3인	-0.002	0.045	-0.03	0.973	-0.089	0.086
	구특성	배우자 유무 (ref=배우 자 없음)	배우자 있음	0.116*	0.062	1.87	0.062	-0.006	0.237
		주택유형 (ref=아파트 외 주택)	아파트	0.014	0.031	0.46	0.645	-0.047	0.076
	주 거 특 성	점유형태 (ref=타가)	자가	0.032	0.040	0.79	0.431	-0.047	0.111
		거주기간 (ref=10년 이상) 근린생활 만족도	3년이하	0.418***	0.064	6.49	<.0001	0.292	0.545
			3년∼5년 미만	0.423***	0.064	6.6	<.0001	0.297	0.549
도			5년~10 년 미만	0.362***	0.066	5.52	<.0001	0.234	0.491
독 립 변 수			녹지환경	0.004	0.020	0.21	0.833	-0.035	0.043
볏			운동적합성	0.111***	0.022	5.11	<.0001	0.069	0.154
一十			공공시설	0.104***	0.020	5.25	<.0001	0.065	0.143
			1백만원 미만	-0.581***	0.167	-3.48	0.001	-0.907	-0.254
		.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0.526***	0.108	-4.88	<.0001	-0.738	-0.315
	경 제 적 특	소득 (ref=4백만 원 이상)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0.136***	0.047	-2.92	0.004	-0.228	-0.045
	성		3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0.194***	0.037	-5.21	<.0001	-0.266	-0.121
		부채 (ref=없다)	있다	-0.056***	0.031	-1.79	0.074	-0.117	0.005

						행부	록지수				
		구분		Coef.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 오차)	t Value	Pr > t	95% Confidence Limits			
			무학								
		학력 (ref=대학	초등학교, 중학교	-0.633	0.647	-0.98	0.328	-1.901	0.635		
		원졸이상)	고등학교, 대학교	-0.147	0.090	-1.64	0.101	-0.323	0.029		
	사 회	직장 (ref=무직	직장있음	0.315*	0.177	1.78	0.076	-0.033	0.663		
	적	(주부 포함)	학생	0.555***	0.194	2.86	0.004	0.175	0.935		
	- 특 성	이웃관계	이웃도움	0.140***	0.020	7.11	<.0001	0.102	0.179		
	성 이웃판/		이웃신뢰	0.094***	0.019	5.01	<.0001	0.057	0.131		
		기부여부 (ref=기부 경험없음)	기부경험 있음	-0.025	0.030	-0.82	0.415	-0.083	0.034		
		계층 상향 가능성	사회경제적 지위상향	0.132***	0.018	7.35	<.0001	0.097	0.167		
통 제	이구통계하저특성	성별 (ref=여)	남	0.046	0.044	1.03	0.301	-0.041	0.133		
변 수	학적특성	연령	가구주의 만 나이	-0.010**	0.004	-2.29	0.022	-0.018	-0.001		
		관측치		3,990							
		\mathbb{R}^2		0.109							
		F		17.97							

[표4-8]은 20~30대 청년층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종속변수인 행복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0.9%로 나타났고 (R²=.109),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17.97, p<0.001).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배우자 유무, 거주기간, 소득, 부채, 직장, 이웃관계, 계층상향 가능성은 종속변수인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와 근린생활만족도의 일부변수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택유형, 점유형태, 학력, 기부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중 연령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은 유의한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확인된 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특성 중에서는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원수' 중일부, '배우자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낮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특성에서는 '거주기간'과 '근린생활만족도' 중 일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주택유형', '점유형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택유형은 아파트일수록, 점유형태는 자가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던 전체가구의 회귀분석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거주기간은 3년~5년 미만, 3년 이하,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순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생활만족도는 녹지환경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운동 적합성은 높아질수록, 공공시설 편의성 역시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에서는 '소득'과 '부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가 없는 경우 부채가 있는 경우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특성에서는 '직장', '이웃관계', '계층 상향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학력'과 '기부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은 학생, 유직, 무직 순으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는 이웃에 대한 도움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상향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은 행복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중장년층 다중회귀분석 결과

						행특	록지 수			
		구분		Coef.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 오차)	t Value	Pr > t		Confidence Limits	
		상수		5.047	0.166	30.47	<.0001	4.723	5.372	
		가구원수	1인	0.064	0.057	1.11	0.266	-0.049	0.176	
	가	(ref=4인이 상)	2인	-0.027	0.035	-0.77	0.444	-0.095	0.042	
	쿠.		3인	-0.088***	0.023	-3.79	0.000	-0.134	-0.042	
	구특성	배우자 유무 (ref=배우 자 없음)	배우자 있음	0.301***	0.049	6.12	<.0001	0.204	0.397	
		주택유형 (ref=아파트 외 주택)	아파트	0.055***	0.021	2.69	0.007	0.015	0.096	
		점유형태 (ref=타가)	자가	0.001	0.023	0.03	0.976	-0.044	0.046	
	$\overline{}$		3년이하	0.118***	0.037	3.22	0.001	0.046	0.190	
	주 거 특 성	거주기간 (ref=10년 이상)	3년~5년 미만	0.156***	0.030	5.15	<.0001	0.097	0.216	
	성	이상)	5년~10 년 미만	0.095***	0.025	3.86	0.000	0.047	0.144	
		771117	녹지환경	0.028**	0.014	2	0.046	0.001	0.055	
독 립 변 수		근린생활 만족도	운동적합성	0.118***	0.015	7.73	<.0001	0.088	0.148	
수			공공시설	0.067***	0.014	4.73	<.0001	0.039	0.094	
			1백만원 미만	-1.491***	0.167	-8.93	<.0001	-1.818	-1.164	
		소득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0.511***	0.078	-6.53	<.0001	-0.664	-0.358	
	경 제 적 특 성	소득 (ref=4백만 원 이상)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0.168***	0.045	-3.72	0.000	-0.257	-0.080	
	0		3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0.028	0.029	-0.94	0.345	-0.085	0.030	
		부채 (ref=없다)	있다	0.003	0.021	0.12	0.901	-0.039	0.044	
	사	학력	무학	-0.296	0.243	-1.22	0.224	-0.773	0.181	
	회	(ref=대학	초등학교,	-0.706***	0.110	-6.4	<.0001	-0.922	-0.490	

						행부	록지수				
		구분		Coef.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 오차)	t Value	Pr > t	95% Confidence Limits			
			중학교								
		원졸이상)	고등학교, 대학교	-0.158***	0.058	-2.75	0.006	-0.271	-0.045		
		직장 (ref=무직	직장있음	0.142*	0.074	1.93	0.054	-0.002	0.286		
	적	(주부 포함))	학생	0.000							
	- 특 성	이웃관계	이웃도움	0.141***	0.013	10.56	<.0001	0.115	0.168		
	성	이굿신계	이웃신뢰	0.129***	0.013	9.96	<.0001	0.104	0.154		
		기부여부 (ref=기부 경험없음)	기부경험 있음	-0.031	0.021	-1.45	0.147	-0.072	0.011		
		계층 상향 가능성	사회경제적 지위상향	0.145***	0.013	11.49	<.0001	0.121	0.170		
통제변수	인구통계	성별 (ref=여)	남	0.000	0.039	0.01	0.994	-0.077	0.078		
변 수	이구롱계하지빠성	연령	가구주의 만 나이	-0.007***	0.002	-3.84	0.000	-0.011	-0.004		
		관측치		8,882							
		R²		0.140							
		F		51.97							

[표4-9]은 40~50대 중장년층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종속변수인 행복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4.0%로 나타났고(R²=.14.0),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51.97, p<0.001).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배우자 유무, 주택유형, 거주기간, 근린생활 만족도, 학력, 직장, 이웃관계, 계층상향 가능성은 종속변수인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와 소득의 일부변수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점유형태, 부채, 기부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연령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유의한 결과값으로확인된 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특성 중에서는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원수' 중

일부, '배우자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낮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특성에서는 '주택유형' '거주기간', '근린생활 만족도'와 '근린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점유형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3년~5년 미만, 3년 이하,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순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생활만족도는 녹지환경이 높아질수록, 운동 적합성이 높아질수록, 공공시설편의성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에서는 '소득' 중 일부는 행복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특성에서는 '학력', '직장', '이웃관계', '계층 상향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기부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은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은 중장년층부터는 학생이 없어 유직과 무직으로만 나뉘었는데 유직이 무직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는 이웃에 대한 도움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상향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성별은 행복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노년층 다중회귀분석 결과

						행=	루지수		
		구분		Coef.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 오차)	t Value	Pr > t	95% Co Lin	nfidence nits
		상수		5.928	0.254	23.37	<.0001	5.431	6.425
		가구원수	1인	0.332***	0.070	4.71	<.0001	0.193	0.470
	가	(ref=4인이	2인	0.169***	0.047	3.6	0.000	0.077	0.261
	구.	상)	3인	0.019	0.047	0.4	0.692	-0.074	0.111
	구특성	배우자 유무 (ref=배우 자 없음)	배우자 있음	0.364***	0.056	6.51	<.0001	0.254	0.474
		주택유형 (ref=아파트 외 주택)	아파트	0.091***	0.026	3.53	0.000	0.041	0.142
		점유형태 (ref=타가)	자가	0.135***	0.032	4.2	<.0001	0.072	0.199
	주		3년이하	-0.021	0.056	-0.38	0.704	-0.132	0.089
	주 거 특 성	거주기간 (ref=10년	3년∼5년 미만	-0.064	0.045	-1.42	0.155	-0.153	0.024
		이상)	5년~10 년 미만	-0.001	0.033	-0.03	0.979	-0.065	0.064
		ᄀ리세하	녹지환경	0.018	0.017	1.08	0.279	-0.015	0.052
독		근린생활 만족도	운동적합성	0.119***	0.019	6.4	<.0001	0.082	0.155
립		·	공공시설	0.090***	0.017	5.13	<.0001	0.055	0.124
립변수		소득	1백만원 미만	-0.803***	0.067	-11.9 4	<.0001	-0.935	-0.671
	경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0.384***	0.048	-7.97	<.0001	-0.479	-0.290
	5 제 적 특 성	ㅗㅋ (ref=4백만 원 이상)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0.116***	0.042	-2.75	0.006	-0.199	-0.033
	, O		3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0.119***	0.042	-2.87	0.004	-0.200	-0.038
		부채 (ref=없다)	있다	-0.028	0.027	-1.03	0.303	-0.082	0.026
	사		무학	-0.646***	0.170	-3.8	0.000	-0.979	-0.312
	호	학력 (ref=대학	초등학교, 중학교	-0.149	0.146	-1.02	0.307	-0.434	0.137
	적 특 성	원졸이상)	고등학교, 대학교	0.018	0.143	0.12	0.901	-0.263	0.299

						행부	복지수			
		구분		Coef. S.E t Pr > It (비표준화 계수) 오차) Value Pr > It				95% Confidence Limits		
		직장 (ref=무직	직장있음	0.088***	0.032	2.74	0.006	0.025	0.150	
		(주부 포함)	학생	0.000						
		이웃관계	이웃도움	0.065***	0.017	3.79	0.000	0.031	0.098	
		이웃근계	이웃신뢰	0.131***	0.016	8.19	<.0001	0.099	0.162	
		기부여부 (ref=기부 경험없음)	기부경험 있음	0.135***	0.029	4.57	<.0001	0.077	0.193	
		계층 상향 가능성	사회경제적 지위상향	0.203***	0.015	13.95	<.0001	0.174	0.231	
사 따 ጆ 왜	인구통계	성별 (ref=여)	남	-0.051	0.044	-1.17	0.241	-0.137	0.035	
변수	인구통계하저빠성	연령	가구주의 만 나이	-0.027***	0.002	-11.0 8	<.0001	-0.031	-0.022	
		관측치		7,112						
		R²	0.249							
		F				8	6.89			

[표4-10]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종속변수인 행복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4.9%로 나타나(R²=.24.9) 분석한 모형 중에서 가장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86.89, p<0.001).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배우자 유무, 주택유형, 점유형태, 소득, 직장, 이웃관계, 기부여부, 상향가능성은 종속변수인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와 근린생활만족도의 일부변수도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주기간, 부채,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연령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으로 확인된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특성 중에서는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원수' 중일부, '배우자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가구원수가 낮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특성에서는 '주택유형' '점유형태'와 '근린생활 만족도' 중 일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거주기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일수록, 점유형태는 자가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생활만족도는 운동 적합성이 높아질수록, 공공시설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근린생활만족도 중 녹지환경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에서는 '소득'은 행복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특성에서는 '직장', '이웃관계', '기부여부', '계층 상향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은 유직이 무직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웃관계는 이웃에 대한 도움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여부는 노년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기부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상향 가능성은 높아질수록 행복지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성별은 행복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전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교

									행복	¦지수					
		구분			전체		청년층 (20세~40세 미만)			중장년층 (40세~60세 미만)			(60	노년층)세 이상)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상수		5.318	0.096	55.56	5.018	0.283	17.7	5.047	0.166	30.47	5.928	0.254	23.37
		가구원수	1인	0.205***	0.037	5.54	0.134*	0.075	1.8	0.064	0.057	1.11	0.332***	0.070	4.71
	 가	(ref=4인이	2인	0.055**	0.022	2.57	0.000	0.050	0	-0.027	0.035	-0.77	0.169***	0.047	3.6
	쉬	상)	3인	-0.053***	0.019	-2.77	-0.002	0.045	-0.03	-0.088***	0.023	-3.79	0.019	0.047	0.4
	무	배우자 유무 (ref=배우 자 없음)	배우자 있음	0.327***	0.031	10.57	0.116*	0.062	1.87	0.301***	0.049	6.12	0.364***	0.056	6.51
		주택유형 (ref=아파트 외 주택)	아파트	0.058***	0.014	4.05	0.014	0.031	0.46	0.055***	0.021	2.69	0.091***	0.026	3.53
		점유형태 (ref=타가)	자가	0.063***	0.017	3.69	0.032	0.040	0.79	0.001	0.023	0.03	0.135***	0.032	4.2
	주		3년이하	0.077***	0.025	3.06	0.418***	0.064	6.49	0.118***	0.037	3.22	-0.021	0.056	-0.38
독립변수	거 특 성	거주기간 (ref=10년 이상)	3년∼5년 미만	0.085***	0.022	3.84	0.423***	0.064	6.6	0.156***	0.030	5.15	-0.064	0.045	-1.42
변 수	(70)		5년~10 년 미만	0.053***	0.018	2.84	0.362***	0.066	5.52	0.095***	0.025	3.86	-0.001	0.033	-0.03
			녹지환경	0.018*	0.010	1.93	0.004	0.020	0.21	0.028**	0.014	2	0.018	0.017	1.08
		근린생활 만족도	운동적합성	0.120***	0.010	11.42	0.111***	0.022	5.11	0.118***	0.015	7.73	0.119***	0.019	6.4
			공공시설	0.083***	0.010	8.61	0.104***	0.020	5.25	0.067***	0.014	4.73	0.090***	0.017	5.13
			1백만원 미만	-0.883***	0.049	-17.88	-0.581***	0.167	-3.48	-1.491***	0.167	-8.93	-0.803***	0.067	-11.94
	경 제 적 특 성	소득 (ref=4백만 원 이상)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0.416***	0.033	-12.63	-0.526***	0.108	-4.88	-0.511***	0.078	-6.53	-0.384***	0.048	-7.97
	성	전 시앙)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0.106***	0.024	-4.37	-0.136***	0.047	-2.92	-0.168***	0.045	-3.72	-0.116***	0.042	-2.75

									행복	¦지수					
		구분			전체			청년층 ~40세 ㅁ	만)	중장년층 (40세~60세 미만)			(60	노년층)세 이상))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Coef.	S.E	t
			3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0.091***	0.020	-4.55	-0.194***	0.037	-5.21	-0.028	0.029	-0.94	-0.119***	0.042	-2.87
		부채 (ref=없다)	있다	-0.029**	0.015	-1.97	-0.056***	0.031	-1.79	0.003	0.021	0.12	-0.028	0.027	-1.03
			무학	-0.817***	0.093	-8.77				-0.296	0.243	-1.22	-0.646***	0.170	-3.8
	학력 초등학교 (ref=대학 중학교			-0.351***	0.055	-6.38	-0.633	0.647	-0.98	-0.706***	0.110	-6.4	-0.149	0.146	-1.02
		원졸이상)	고등학교, 대학교	-0.116**	0.047	-2.45	-0.147	0.090	-1.64	-0.158***	0.058	-2.75	0.018	0.143	0.12
	사 회 절	직장 (ref=무직	직장있음	0.128***	0.026	5.01	0.315*	0.177	1.78	0.142*	0.074	1.93	0.088***	0.032	2.74
		(ret=무식 (주부 포함))	학생	0.597***	0.098	6.1	0.555***	0.194	2.86	0.000			0.000		
	적 특 성	이웃관계	이웃도움	0.112***	0.009	11.89	0.140***	0.020	7.11	0.141***	0.013	10.56	0.065***	0.017	3.79
	성		이웃신뢰	0.122***	0.009	13.64	0.094***	0.019	5.01	0.129***	0.013	9.96	0.131***	0.016	8.19
		기부여부 (ref=기부 경험없음)	기부경험 있음	0.014	0.015	0.96	-0.025	0.030	-0.82	-0.031	0.021	-1.45	0.135***	0.029	4.57
		계층 상향 가능성	사회경제적 지위상향	0.169***	0.008	19.95	0.132***	0.018	7.35	0.145***	0.013	11.49	0.203***	0.015	13.95
통제변수	이그통계하저특성	성별 (ref=여)	남	-0.006	0.024	-0.26	0.046	0.044	1.03	0.000	0.039	0.01	-0.051	0.044	-1.17
변 수	변 학수 연령 가구주 연령 만 나		가구주의 만 나이	-0.014***	0.001	-18.33	-0.010**	0.004	-2.29	-0.007***	0.002	-3.84	-0.027***	0.002	-11.08
	관측치			20000		3990		8882			7112				
	R ²		0.231		0.109		0.140			0.249					
	F 스녀츠/10대)은 과츠워가 저			(4021) =13	213.83			17.97		51.97		86.89			

^{*} 청소년층(10대)은 관측치가 적어(16건) 다중회귀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가구·주거·경제적·사회적 특성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청년층(20~40세 미만), 중장년층(40~60세), 노년층(60세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표4-11]과 같다. 전체와 연령대별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별로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일부 차이가 존재하여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별(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로 다를 것이다'라는 본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부 변수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대부분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인간의 기본 욕구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여러 욕구가 동시에 작용해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Schneider & Alderfer(1973)의 주장이 타당한 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비표준화계수값 상위 5개를 분석하면 전체가구의 경우 학생, 유배우자, 1인가구, 계층상향가능성, 유직 순으로 성장욕구와 관계욕구에 해당하는 항목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층의경우 학생, 거주기간 3년~5년, 거주기간 3년 이하, 거주기간 5년~10년미만, 유직 순으로 성장욕구, 생존욕구가 중요한 변수였다. 중장년층의경우 유배우자, 거주기간 3년~5년, 계층 상향 가능성, 유직, 이웃의 도움순으로 관계요구, 생존욕구, 성장욕구가 모두 중요했다. 노년층의 경우유배우자, 1인가구, 계층 상향 가능성, 2인 가구, 점유형태 순으로 관계욕구가 미치는 영향력이 강한 반면, 가구원수가 적게 유지됨을 선호함을알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청년층은 성장욕구와 생존욕구가 강한 편이고, 중장년층부터는 유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되면서 관계욕구가 강해지는 동시에 계층 상향 가능성, 유직 등의 성장욕구 또한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 노년층은 유배우자, 1~2인가구와 같은 관계욕구 항목이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가구특성 중 가구원수는 노년층으로 갈수록 1~2인 가구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우자의 경우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비표준화계수가 높아져 그 영향력이 강해짐을 알 수 있다.

주거특성 변수 중 주택유형은 청년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장년층과 노년층으로 갈수록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점유형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노년층의 경우 자가를 선호했다. 거주기간은 청년층은 10년 이상의 장기거주 보다 단기 거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고, 중장년층도 단기거주를 선호하나 그 강도는 청년층에 비해 약해졌으며, 노년층은 거주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적 특성 중 소득은 중장년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비표준화계수가 높아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부채는 전체표본과 청년층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부채가 없는 경우 부채가 있는 경우보 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경우 비표준화계 수 값은 전체 표본(-0.029)과 청년층(-0.056)이 모두 마이너스로, 부채가 있을수록 행복지수가 감소하고 특히 전체 표본보다 청년층이 부채로 인 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부채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2만 가구 중 절반인 1만 가구가 부채가 있었으며, 거주주택 마련이 4,381 건(4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2,897건(29%),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이 854건(9%), 사업자금 마련 589건 (6%), 부채상환 360건(4%), 생활비 마련 348건(3%), 교육비 마련 288건 (3%), 기타 결혼자금 100건(1%), 증권투자금 94건(1%), 의료비 마련이 89건(1%) 순으로 높았으며, 가구 부채 대부분(82%)이 부동산 관련 항목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층의 경우에도 부채 가구 2,403건 중 전(월) 세 보증금 마련 1,302건(54%), 거주주택 마련 722건(30%), 거주주택 이 외 부동산 마련이 78건(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생활비 마련 62건(3%), 교육비 마련은 52건(2%)을 차지하여 생활비나 교육비보다 주거비 부담 관련 대출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특성 중 학력은 청년층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중장년 층과 노년층은 부분적으로 유의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강한 경향은 뚜렷했다. 직장의 경우 청년층에만 학생이 포함되었고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주 강했으며 유직인 경우에도 다른 연령층과비교할 때 가장 강했다. 청년층에서는 학생 및 직장인이라는 신분이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웃의 도움 변수는청년층과 중장년층은 거의 동일하게 강한 영향을 미쳤고, 이웃의 신뢰변수는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강한 경향을 보였다. 기부경험 변수는 노년층에서만 유의한 변수로 그 영향력도 강한 편이었다. 이를 통해 학업, 직장 등으로 여유가 없는 청년층이나 중장년층보다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년층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층 상향 가능성은 노년층으로 갈수록 강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삶에 안주하여 성장욕구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년층 역시 목표 혹은희망이 삶의 큰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성장욕구가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나이와 관계없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4 절 가설의 기각 및 채택

앞에서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울시 가구의 행복지수 영향요인을 정리하면 [표4-12]과 같다.

[표4-12] 행복지수 영향요인 요약

구분			행복지수			
	下正		전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가구특성	가구원수	연속	(-)	일부(-)	일부(-)	일부(-)
八十 二 公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	(+)	(+)	(+)
주거특성	주택유형	아파트	(+)		(+)	(+)
	점유형태	자가	(+)			(+)
	거주기간	연속	(-)	(-)	(-)	
	근린생활 만족도	녹지환경	(+)		(+)	
		운동 적합성	(+)	(+)	(+)	(+)
		공공시설	(+)	(+)	(+)	(1)
		편의성				(+)
경제적	소득	연속	(+)	(+)	일부(+)	(+)
특성	부채	부채있음	(-)	(-)		
사회적 특성	학력	연속	(+)		일부(+)	일부(+)
	직장	직장있음	(+)	(+)	(+)	(+)
	이웃관계	이웃도움	(+)	(+)	(+)	(+)
		이웃신뢰	(+)	(+)	(+)	(+)
	기부여부	기부				(+)
	상향 가능성	연속	(+)	(+)	(+)	(+)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기각 및 채택여부를 종합하여 정리 한 결과 아래 [표4-13]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4-13] 가설의 기각 및 채택

구분	내용	결과 (전체기준)
가설1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1-1.	가구특성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1-1-1.	가구원수는 행복지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1-2.	배우자는 행복지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ᄀᆸ	H 0	
구분	내용	(전체기준)
1-2.	주거특성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1-2-1.	주택유형(아파트)은 행복지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2.	점유형태(자가)는 행복지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3.	거주기간은 행복지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4.	근린생활만족도는 행복지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경제적 특성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1-3-1.	소득은 행복지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2.	부채는 행복지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4.	사회적 특성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1-4-1.	학력은 행복지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4-2.	직장은 행복지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4-3.	이웃관계는 행복지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4-4.	기부는 행복지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4-5.	계층 상향 가능성은 행복지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행복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별(청년층, 중장년층, 노	채 택
	년층)로 다를 것이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가구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행복지수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행복의 상향확산이론에 기반하여 서울시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대별로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보아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9년,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표본은 서울시 주민 20,000명이다. 분석자료로는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행복지수의 영향요인을확인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주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82점으로 보통(5점) 보다 조금 높았다. 둘째, 독립변수 중 가구특성에서는 아이가 있을수록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가구원수는 행복지수에 부(-)의 영향, 배우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환경이열악한 서울시의 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특성은 아파트, 자가는 정(+)의 영향, 거주기간은 행복지수에 부(-)의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기간 정착에 따른 안정감보다 방음, 내부마감 등에서 우수한 신축 주택을 선호하는 최근의 주택시장 특성과부합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린생활만족도인 녹지환경, 운동적합성, 공공시설 편의성은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특성 중 소득은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 부채는 부(-)의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특성은 학력, 직장, 이웃관계, 계층 상향 가능성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행복의 영향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가구·주거·경제적·사회적 특성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특히 독립변수 측정 시 기존 연구와 다르게 개인적 요인 및 주거환경특성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경험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또한, 상향이론에 근거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부개입의 정당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행복이 삶에서의 세부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만족감과좋은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의미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거·경제적·사회적 특성이 행복의 영향요인임을 밝혀냈는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행복정책 방향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욕구의 만족이 행복감과 연결된다는 욕구이론의 기본 전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간의 기본 욕구와 행복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행복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연결함으로써 향후 국민행복의 증진을 위해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lderfer의욕구충족이론을 중심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생존·관계·성장욕구에 대한 만족이 모두 행복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장욕구와 관계욕구가 행복에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존욕구가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적었다. 비표준화계수값은 학생, 유배우자, 1인가구, 계층상

향가능성, 유직 순으로 높아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생존욕구에 해당하는 주거나 경제특성은 영향력이 가장 적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 상위 욕구의 만족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력과 계층 상향 가능성은 높을수록 행복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 및 중장년층은 학력이 월등히 높았는데 우리나라는 계층 상향에 대한 동기가 높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열망 또한 굉장히 높은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관련 변수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컸지만 계층 상향 가능성에 대한 평균은 2.87점으로 현재 계층에서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현재보다 나은 위치로 올라갈수 있는 역능성이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일률적인 평준화를 지향하는 것보다 개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체계 마련 등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득 변수가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많은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주 높은 편이었다. 또한 소득과 관련있는 유직 변수도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따라서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증가하는 정책 및 양질의 일자리 증가를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 연령층에서 배우자가 있을수록 가구원수는 적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졌다. 이웃관계에서도 행복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행복지수에 관계욕구가 상당히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배우자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이므로 고용촉진,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 임대주택 활성화 등 안정적인 직장 및주거를 보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대한 긍정적 인식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주택유형 및 거주형태는 아파트, 자가가 행복지수가 높았다. 한국의 경우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로 개발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단독주택 등 기타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나, 서울시도심은 건축가능한 유휴지가 제한적이므로 기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는 청년층에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청년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의 대출사유(2,403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이 전월세 보증금 마련(1,302건, 54%)과 거주주택 마련(722건, 30%)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여 주거문제로인한 청년층의 대출부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층에 대해서는 더욱 저리의 전월세·주택구입 대출상품 및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행복지수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주로 개인 및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는데 연구에 사용한 변수 외에 다양한 변수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보다 다양한 개인 및 환경적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보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적 범위가 서울지역에 한정되어 소도시 및 농촌지역 등 정주여건이 다른 지역에서 가구·주거·경제적·사회적 특성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므로 분석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범위를 서울 이외의 지역으

로 넓혀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9년이라는 단일시점의 횡단면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행복지수의 영향요인을 제시했으나, 분석자료의 한계로 일반화에는 어려움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점에 걸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거·경제적·사회적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공간 및 시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고길곤(2017),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문우사 남궁근(2017),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신문·잡지·기타>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홈페이지: http://data.si.re.kr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홈페이지: http://data.seoul.go.kr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보도자료,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논문>

- 강민성(2015),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철희·최명민·김수연(2012),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행복감과 사회적 신뢰 및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 분석",『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2): 57-82.
- 고명철·최상옥(2012),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6(4): 103-126
- 김명소·김혜원·차경호·임지영·한영석(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미곤(2015), "한국인의 가구유형별 개인특성별 주관적 행복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74호 (2015-06)
- 김병섭·안선민·이수영(2015),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 미치는 영향분석: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논총』, 53(2): 97-121
- 김병조(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SUM), 241-268
- 김용율(2020), "1인가구의 주거이동과 점유형태 선택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충선(2015),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정(2017), "지역사회의 질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상민(2020), "노인의 주거환경 관력 특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변미리·최정원(2016), "서울 시민의 행복 메커니즘: 시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조사연구』, 17(2): 61-84.
- 서은국·구재선·이동귀·정태연·최인철(2010),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의미",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1), 213-232
- 서은국·구재선(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 지: 사회 및 성격』, 25(2):143-166
- 엄영호·엄광호(2017), "지역에 대한 애착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1(2)
- 오민지(2016), "행복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창빈(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한국 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p.1017
- 유민봉(2015), "한국행정학", 『박영사』
- 유민상(2016),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 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내찬(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제 32권, 보건사회연구원.
- 이성윤(2014), "행정서비스가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윤경(2018), "삶의 질 영향요인 추세분석, 상향확산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4(2), 35-72
- 이윤희(2011), "문화정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상과 문화』, 58(58): 397-423.
- 이지은·강민성·이승종(2014),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559-588
- 이형규(2018),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 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근식(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pp.47-89
- 임준홍·홍성효(2014), "주거환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충남지역을 사례로", 『주거환경』, 12(2), 한국주거환경학회
- 정영아(2018), "사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정길(2011),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 정지범(2011), "국민 행복 결정 요인 분석 및 제도적 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최영출(2014), "사회정책적 요인이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OECD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 보』, 18(1), 1-22.
- 최영출·이지혜(2013), "지역 주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 보』, 27(2): 21-37

- Alderfer, C. P.(1969), "An empirical test of a new theory of human need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4(2): 142-175
- Campbell, A(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2):117
- Compton, W. C.(2005), "긍정심리학 입문"(서은국, 성민선, 김진주, Trans.), 『박학사』
- Derek Bok.(2011), "The Politics of Happiness: What Government Can Learn from the New Research on Well-Be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iener(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Gohm, C. L., Suh, E., & Oishi, S.(2000), "Similarity of the relations between marital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Journalofcross-culturalpsychology, 31(4), 419-436"
- Frey, B., Stutzer, A.(2002),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 p.402-435
- Graham, C.(2012), "The pursuit of happiness: An economy of well-being",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Hagerty M., Veenhoven R.(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 p.1-27.
- Hagerty M., Veenhoven R.(2006), "Rising happiness in nations 1946
 2004: A reply to Easterli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9, p.421-436.
- Kraut, R.(1979), "two Conception of happiness. Philosophical of Happiness. Philosophical Review", 87: 167–196.

- Layard, Richard(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Penguin, London, UK."
- Loscocco, K. A., & Roschelle, A. R.(1991), "Influences on the quality of work and nonwork life: Two decades in review",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2), 182–225.
- Lucas, R. E.(2005), "Time Does Not Heal All Wounds A Longitudinal Study of Reaction and Adaptation to Divorce", "Psychological Science, 16(12): 945–950.
- Lykken, D., & Tellegen, A.(1996), "Happiness is a stochastic phenomenon", "Psychological science, 7(3), 186–189.
- Maslow, A. H.(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_
- Maslow, A. H., Frager, R., & Cox, R.(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Vol. 2)", 「J. Fadiman, & C. McReynolds(Eds). New York: Harper & Row』
- McMahon, D.(2005), "Happiness: A history",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 Ott, Jan.(2010),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r Number: Some Non-controversial Options for Governmen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5): 631-647.
- Prycker, Valérie(2010), "Happiness on the Political Agenda? PROS and C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5): 585-603.
- Richard Ball and Kateryna Chernova(2008), "Absolute Income,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88, No. 3 (Sep., 2008), pp. 497-529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
- Ryff, C. D., & Keyes, C. L. M.(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chneider, B., & Alderfer, C. P.(1973), "Three studies of measures of need satisfaction in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89–505
- Sirgy, M. J., Efraty, D., Siegel, P., & Lee, D. J(2001), "A new measure of quality of work life(QWL) based on need satisfaction and spillover theor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3), 241-302.
- Sirgy, M. J., Widgery, R. N., Lee, D. J., & Grace, B. Y.(2010), "Developing a measure of community well-being based on perceptions of impact in various life domai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2), 295-311.
- Stevenson, B., Wolfers, J.(2008), "Happiness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gal Studies, 37(2), pp.33-79.
- Veenhoven, R.(1999), "The four qualities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39.
- Veenhoven, R.(2001), "Quality-of-life and happiness", "Not quite the same."
- Veenhoven, R.(2005), "Apparent Quality-Of-Life in Nations: How long and happy people l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71, pp.61-86.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happiness index

- The Case of Seoul Citizen -

SeJin Park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happiness index.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is Seoul, and the temporal range is 2019. By adopting the Alderfer's desire theory (existence, relationship, growth desire) which is said to feel happy through the fulfillment of needs, and the bottom-up spillover theory of happiness which leads to happiness in fullfillment with individual sub-regions of satisfactory, the specific independent variables were chosed. Based on this, the hypothesis was established that household characteristics, residential characteristics,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social characteristics affect the happiness index. In addition, the study was conducted by establishing a hypothesis that influencing factors would vary by age group of young, middle-aged, and older people.

of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study are household characteristics, residential characteristics,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social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 is the happiness index.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happiness index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ll independent variables, except donation, which is one element of social characteristics, affect the happiness index. In detail, household members among household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happiness index, and spouses had a positive(+) effect.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apartment, owner, neighborhood living satisfaction(green land, workout suitability, convenience of public facilities) were influenced by positive(+) and residential period by negative(-). Among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income has a positive(+) effect and liabilities have a negative(-) effect. Lastly, among the social characteristics, educational background, work, neighborhood relationships, and hierarchical upward possibilities indicated positive(+) effects, and donation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derfer's three needs were all found to have an impact on the happiness index, among which the top needs, the desire for growth and the desire for relationship,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ther hand, it is administratively significant in that it studied happiness in relation to the role of the state, and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securing representation and generalization of samples by conducting a study of 20,000 large-scale Seoul residents.

keywords: happiness index, household characteristics, housing characteristics, economic characteristics, social characteristics Student Number: 2020-26682